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이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행동에 주는 영향

김 지 경
한국교원대학교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단기적 이익과 사회공동체의 집단적 이익이 상충하는데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가치 지향(social value orientation), 탐욕(greed)과 두려움(fear),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just world belief)이 협동행동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또 친사회적 가치지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 행동 쪽으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의 형성에 애착(attachment)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애착유형별로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안정애착 유형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강하며 친사회적 가치지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신뢰, 사회적 가치지향의 세변 인간에도 관계가 있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으며 친사회적 가치지향의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조작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주요어 : 신뢰, 사회적 가치지향,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탐욕, 두려움, 애착.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거나 나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경우 물고기는 바다에 무한정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의 수입을 위해 새끼 물고기들까지도 잡아버린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나만을

위한 이러한 행동을 모든 어부들이 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곧 어종이 멸종하여 더 이상 고기잡이가 생업이 될 수가 없다. 또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를 하거나 세원을 감춘다면 공익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행동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변인이 이에 관여한

본 연구는 2005년도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김지경은 한국교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처 : 김지경,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전화 : 043) 230-3643,

E-mail : adeleide@knue.ac.kr

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불신을 한다면 즉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이 될까? 아마도 나 역시 탈세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물고기를 다 포획하기 전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성향과 타인에 대한 신뢰여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나 탈세, 자연보호, 법 지키기 와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개인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 행동하고 그것이 집단의 혹은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득과 상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여러 다른 이름과 개념으로 연구되었는데 공공재(public goods, Olson, 1965), 무임승차(Free rider, Olson, 1965; Sweeney, 1973),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Rapoport & Chammah, 1965), 사회적 함정(social traps, Platt, 197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Hardin, 1968) 등등의 주제로 연구되어왔다. 이 모든 주제들이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그 주제들을 특징지어 주는 하나의 공통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의 단기적 이득과 집단적 이득간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득과 공존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배려할 때 아니면 적어도 나의 책임을 다할 때 타인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행동할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나 역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데 다른 사람

들은 탈세를 일삼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행동이 바보같이 생각된다. 이와 같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예측을 바탕으로 나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신뢰는 중요하다.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변인은 개인의 사회적 가치지향(social value orientation)이다. 기존의 연구(Deutsch, 1958)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가치지향을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친사회적 가치지향을 지닌 사람들은 평등지향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공존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쟁주의나 개인주의의 경우는 자신의 목표달성, 개인적 이득이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 행동이 자신의 이득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협동행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면 친사회주의자들이 가장 협동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고 수정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아기에 토대를 둔 애착유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유아기 때 엄마와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에 대한 그리고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신뢰와 애착유형간의 관계를 검증한 국내의 연구는 없다. 비슷한 논리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을 것이고 이는 경쟁적이거나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가치가 아닌 친사회적 가치를 발달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 탐욕과 두려움(Coombs, 1973),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협동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이다. 탐욕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기로 경쟁주의적 가치지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두려움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이기적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협동행동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은 응당 자신이 받을만한 몫을 받는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은 딜레마 상황에서 내가 헌신하는, 노력하는 양만큼의 보답이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여 협동행동을 촉진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이러한 변인들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동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신뢰

신뢰에 대한 개념정의와 강조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Rousseau, Sitkin, Burt와 Camerer 등(1998)은 신뢰를 정의하기를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해서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도로 구성된 심리적 상태’라고 하였으며, ‘교환관계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련의 기대’(Doney, Cannon & Mullen, 1998; Zucker, 1986) 혹은 ‘타인을 믿고 기꺼이 의존하려는 것’(Mayer 등, 1995) 등이 있다. 이밖에도 많은 정의가 있지만 신뢰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임성민, 김명언, 2000). 첫째는 신뢰를 얘기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태도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때의 위험은 의사결정자가 지각하는 손실의 확률이다. 신뢰가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요소는 상호의존성이다. 이는 서로간의 상호의존성 속에서 이득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호의존적이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주요 관심사였다. 이 경우 신뢰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인물에 대해 갖는 신뢰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의 개념이다. 즉 내가 법을 지키는데, 혹은 양심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법을 지키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공익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는가가 중요변수가 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이러한 신뢰가 협동행동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였다. 또 신뢰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사회적 가치 지향이라는 변인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신념은 세상을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곳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을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존재로 믿는 신뢰와 관련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애착이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조직내에서의 신뢰가 협력행동의 선행 변인임을 언급하고 있다(Axelrod, 1984; Mayer, Davis & Schoorman, 1995; McAllister, 1995; Powell, 1990).

사회적 가치지향(social value orientation)

전통적인 동기 이론들은 인간의 동기를 경제적 인간(economic man), 합리적 이득 추구자(rational self-interest)로서 설명해왔다(Luce & Raiffa, 1957; Von Neuman & Morgenstern, 1947). 그러나 최근의 이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동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인 상황에서 타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좀더 협조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덜 협조적이다. 즉 이것은 사회적 가치 지향에 있어서 안정적인 개인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cClintock, 1978; Messick & McClintock, 1968). 사회적 가치지향은 결과물들이 상호의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목표이자 동기이다. 사회적 가치지향에 대한 분류는 Deutsch(1958)가 최초인데 그는 협동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의 세가지 분류를 사용하였다. McClintock(1972)은 네 번째 분류를 추가하였는데 이타주의가 그것이다. 그 이후에 Kelley와 Thibaut(1978)는 7개의 분류를, MacCrimmon과 Messick(1976)은 10개의 분류를 통해 사회적 가치지향을 개념화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utsch(1958)의 기준을 따라 세가지 범주로 사회적 가치지향을 분류하여 친사회주의자, 개인주의자, 경쟁주의자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세가지 범주가 가장 간명하면서도 가치 지향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분류체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세가지 가치유형을 살펴보면, 친사회주의자는 자기와 타인의 이득을 최대화하려 하며 나와 타인의 이득의 차이를 최소화하려한다. 즉 평등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려한다. 경쟁주의자는 타인보다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러

한 세가지 가치 지향유형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는데, 친사회주의자들은 협동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며 경쟁주의자나 개인주의자들은 상대방이 협동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지향에서의 차이는 과거로부터 경험해온 타인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항상 남보다 앞서려는 사람들과의 반복적인 경험은 개인주의적이거나 경쟁적인 가치를 발달시킬 것이다. 반대로 협조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협동적인 가치를 발달시킬 것이다. 이러한 예측과 일관되게 협동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나 경쟁주의자보다 타인들이 훨씬 더 협동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Kuhlman & Wimberley, 1976). 이렇게 과거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가치 지향의 차이는 결국 타인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친사회주의자들은 타인도 자신처럼 협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개인주의나 경쟁주의자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타인에 대해 무관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Van Lange, 1997) 친사회주의는 여성이(58.5%) 남성보다(47.7%) 많았으며 개인주의는 근소한 차이로 남성이(41.0%) 여성보다(32.3%) 많았으며 경쟁주의는 남성(11.3%)과 여성(9.3%)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Just World Belief)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다. 이것은 응당 자신이 받을 몫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착한 행동에는 보상이, 나쁜 행동에는 그에 따른 응징을 받게 된다는 단순한 믿음이다. Lerner(1975)는 이러한 신념을 가리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칭하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공정한 곳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불합리함, 불공정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정의로운 곳이라는 신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신념을 통해 자신의 통제감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동기화될 수 있다. 내 운명의 주관자는 나이며 내가 환경을 통제한다고 믿을 때 우리는 내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통제감을 주는 것이다. 개인적인 성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믿음은 더 강할 수 있고 반대로 차별이나 부당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러한 믿음은 약해질 것이다. 개인적인 성취 외에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타인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신뢰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이 강해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신뢰와 정적 상관을 가질 것이며 사회적 가치지향 유형에 따라서 친사회적 가치지향 유형이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도 가장 강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탐욕과 두려움

협동행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경쟁적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탐욕과 두려움을 들 수 있다.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Coombs(1973)가 제안한 것으로 탐욕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기로 경쟁주의적 가치지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두려움은 신뢰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협조적 행동이 무의미하거나 아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력감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협동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적극적인 혹은 이기적인 자기이익의 추구(탐욕)외에도 타인들에 대한 신뢰부족과 자신의 협동적 행동이나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 타인들의 이기적 행동에 의해 원래의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무력감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어를 낚지 않기로 약속을 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서라기보다는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만 다른 어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몰래몰래 치어를 낚는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약속을 지키는 자신

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도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하려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상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면 군비축소를 약속했다하더라도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신이 꼭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어야한다는 동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방어적 의미의 동기가 우세한 경우이다. 이때의 두려움의 개념은 단순히 신뢰의 부재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욕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기적 행동을 하리라는 예측과 그로인해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을 택하지 않고 경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은 적극적인 자기이익의 선택에 기초한 동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불신, 신뢰의 결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동기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Yamagishi와 Sato(1986)는 이 두가지 동기를 구분하여 실험 상황에서 두가지 동기가 서로 다르게 작용함을 보였다. 집합적 과제(conjunctive task)에서는 두려움이 강한 효과를 나타낸 반면 비집합적 과제(disjunctive task)에서는 탐욕이 강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Bruins, Liebrand와 Wilke(1989)도 실험실 상황에서 이 두가지 동기가 협동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여, 이 두가지 동기의 특출성(salience)가 낮은 조건에서 협동행동이 가장 많음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 두가지 동기를 주제로 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동기를 척도화한 것을 이용하여 두가지 동기가 협동행동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뢰, 사회적 가치지향, 애착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작은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요구에 반응적이었던 아이들은 신뢰와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친사회적 가치지향이 발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왔던 아이들은 불신과 불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기중심적 지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가치지향의 차이를 유발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강조하는 상호의존성 이론이 사회적 가치 지향의 차이를 가져오는 유전적 차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설명이 경험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Olweus, 1979; Rushton, Fulker, Neale, Nias, & Eysenck, 1986)

일군의 연구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Durkin, 1995; Eisenberg & Fabes, 1991; Knight & Dubro, 1984; Rushton, 1975). 또 어떤 연구들은 문화가 협동적, 경쟁적 행동의 경향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집단주의 경향이 강한 문화권의 아이들일수록 협동적 행동을 많이 하고 경쟁적 행동을 적게 한다고 한다(Knight, Kagan, & Buriel, 1981; Knight, Kagan, Nelson, & Gumbiner, 1978; Madsen & Lancy, 1981; McClintock, 1974). 이러한 모든 연구결과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들이 사회적 가치지향과 행동들을 조형한다는 사실들과 연관된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애착경험(주로 어머니와의)이 이후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Simpson, 1990). Van Lange, Otten, De Bruin과 Joireman (199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사회적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안정 애착을 보이며 형제수가 더 많고, 특별히 여자 형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친사회적 성행이 증가하며 개인주의나 경쟁주의 경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애착이론은 세가지 애착유형을 가정하는데, 안정애착, 불안-양가감정적 애착, 회피적 애착이 그것이다(Ainsworth 등 1978). 안정애착의 경우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쉽고 타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불안-양가 감정적 애착 유형은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타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기를 꺼려한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회피적 애착유형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지향의 차이와 애착 유형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과 사람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신도 믿을만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호협력적인 행동패턴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친사회적 가치 지향을 낳게 한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위협하고 모험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불신에 기반한 비협동적 행동패턴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한 행동은 개인주의적인 때로는 경쟁적 지향을 갖게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비슷한 설명으로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가 강하며 불안정 애착의 경우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가 약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동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협동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가운데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과 애착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협동행동에 영향을 주리라고 가정할 변인은 다섯 가지인데, 신뢰, 사회적 가치지향, 탐욕, 두려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이 가운데 신뢰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협동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사회적 가치지향은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았는데, 친사회적 가치지향 유형이 가장 협동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탐욕과 두려움은 서로 다른 내용의 동기이지만 협동행동에는 부적 영향을 미쳐 이러한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협동행동을 적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인 들 가운데,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이 애착과 관련이 있어, 안정애착유형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친사회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애착유형을 조사한 다음 이러한 애착유형과 신뢰, 사회적 가치 유형이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

조사는 2005년 9월 H 대학의 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남자 92명 여자 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학년 42명, 2학년 48명, 3학년 14명, 4학년 52명의 분포였다. 응답자 156 명의 자료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것들을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사회적 가치지향 유형은 5개의 일관된 응답 패턴을 나타내는 사람들만을 포함시켜 다른 설문의 응답자와 분석대상의 수가 차이가 있었다.

측정도구

신뢰 척도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山岸俊男이 1993년 실시한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척도를 변안한 6개의 문항(김의철 등, 2001)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와 같이 타인의 정직함이나 신뢰와 관련된 문항들이다. 본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신뢰도는 .793이었다.

사회적 가치지향 척도

사회적 가치 지향에서의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 이전 연구(Van Lange와 Kuhlman(1994)에서 사용된 9개의 item 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내가 아닌 타인, 과거의 접촉이나 미래에 만날 가능성이 없는 제 3자와 나에게 배분하는 점수를 세 가지 조합 가운데 한 가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때 세 가지 선택 대안이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나타내주는 것인데, 경쟁주의는 나와 타인의 점수를 최대한 벌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개인주의는 나와 타인의 점수를 최대한 벌리기보다는 나의 점수를 최대화 하는 선택에 초점이 주어진다. 친사회주의는 나와 타인의 점수를 동등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9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 나중에 개인의 사회적 가치 유형을 결정할 때는 동일한 선택이 5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 및 내적 합치도가 높다는 것이 연구에서 입증되었다(Kuhlman, Camac, & Cunha,

1986; Van Lange & Semin-Goossens, 1997).

애착 유형척도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을 네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문항으로 만들어 자신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선택하게 한 Bartholomew 와 Horowitz (1991)의 척도를 번안한 것을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이성이나 친구 혹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양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두개의 자기모델과 두개의 타인모델을 기초로 4가지 유형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때 네가지 애착 유형은 안정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혼돈 애착, 불안정-저항 애착이다.

협동과제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개인적인 애착 유형 등이 실제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협동적인 혹은 이기적인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가를 보기 위해 가상적인 상황을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과 함께 과제를 할 사람이 세 명 더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2만원씩이 지급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내놓고 싶은 만큼의 돈을 내놓은 다음 돈의 합계가 4만원이 되면 여러분 집단에게 8만원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이 보너스는 각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내놓았는가와 상관없이 4명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당신은 얼마를 내놓겠습니까?”

탐욕과 두려움

Yamagishi와 Sato(198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탐욕과 두려움 척도는 각각이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도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일방적인 협조는 소용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협동을 하지 않는다)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타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 모험을 피하려는 경향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탐욕을 측정하는 문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예를 들어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들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욕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653이었고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528이었다.

구에서는 이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욕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653이었고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528이었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ubin과 Peplau(1975)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just world belief) 척도를 번안한 김지경(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평한 곳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가 한만큼 돌려받는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신뢰도는 .765이었다.

결 과

신뢰, 사회적 가치지향, 탐욕, 두려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협동행동

협동행동과 신뢰, 사회적 가치지향, 탐욕과 두려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딜레마 상황에서 내놓겠다고 제안한 액수와 신뢰, 탐욕, 두려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 결과를 보면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강할수록 협동과제에서 내놓겠다고 한 돈의 액수가 컸음을 알 수 있다($r=.253, p<.01$). 예상과 달리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돈의 액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래의 분석결과를 보면(표 1) 신뢰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달리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실제적인 협동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의 더 많은 요소를 포괄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탐욕과 두려움은 예측한 대로 방향성은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엔 이르지 못했다.

사회적 가치 유형과 협동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앞서 먼저 사회적 가치 지향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가치지향은 5번의 동일한 응답 패턴을 보인 경우 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156명의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5번의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않은 34

표 1. 신뢰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관계적 자아, 협동행동 간의 관계

	신뢰	공정한 세상믿음	탐욕	두려움
협동행동	.253**	.157	-0.28	-.116

** $p < .01$

명의 조사대상자는 제외되었다. 친사회적 가치지향은 84명(53.8%), 개인주의 31명(19.9%), 경쟁주의 7명(4.5%)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내놓은 돈의 액수를 종속변인으로 변량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조건별 응답자의 수가 차이가 많이 있었기에 변량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e 통계량 값이 0.550으로서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이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가치지향유형별 협동행동의 지표로서의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변량분석한 결과(표 2)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121)=6.704, p < .01$). 사후검증을 (Tukey 검증) 실시한 결과 친사회지향과 개인지향간에, 그리고 친사회지향과 경쟁지향간에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 유형이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동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변인이 협동행동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협동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 유형이 각각 협동행동을 예언하는 유의미한 변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신뢰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 유형을 함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협동행동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 회귀분석

		β	t	adjusted R^2	F	R^2 change	F change
모델1	신뢰	.221	2.480*	.041	6.153**		
	신뢰	.126	1.364				
모델2	친사회적가치	.230	2.357*				
	경쟁주의가치	-.088	-.954	.093	5.122***	.066	4.430**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가치유형별 협동행동으로서의 돈의 액수

	친사회지향	개인지향	경쟁지향
돈	13857.14(4045.35)	11612.90(3018.58)	10000.00(.00)

회귀분석결과 신뢰는 협동행동을 예언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회귀계수는 .221로 신뢰가 증가할수록 협동행동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 변수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모델 2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가치지향 유형은 모두 3가지 범주변수로서 응답자는 3 유형 중 한 유형에 속하는 변수이다. 그러므로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주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한 친사회적 가치 유형 변수는 개인주의유형은 0, 친사회적 가치 유형은 1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와 사회적 가치 유형두 변수를 함께 사용한 모델 2의 R^2 값은 .093으로 세 변수가 협동행동에 대해 설명해주는 설명량은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친사회적 가치유형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와 사회적 가치유형을 함께 고려할 경우는 사회적 가치유형 가운데서도 친사회적 가치유형만이 협동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신뢰와 친사회적 가치유형이 관련이 높은 변수이어서 이 두가지 변수가 같이 고려될 때는 신뢰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 탐욕, 두려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협동행동에 영향을 주리라고 가정하였던 다섯 가지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표 4. 신뢰, 탐욕, 두려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간의 관계

	신뢰	정의세상믿음	탐욕
정의세상믿음	.336**		
탐 욕	-.127	.007	
두려움	.03*	.129	-.060

* $p < .05$, ** $p < .01$

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보면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았다($r = .336, p < .01$). 어떤 변인이 선행변인인가는 추후 연구에서 더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위의 결과를 보면 세상이 정의로워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을 몫을 받는다는 신념과 타인이 믿음만한 존재라는 신념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신뢰가 강한 사람들이 두려움 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것이다($r = .203, p < .05$). 이것은 어쩌면 신뢰의 이면에 타인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이 자신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완전한 신뢰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심하는 자보다 신뢰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클 수 있다. 신뢰와 탐욕, 탐욕과 두려움 간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탐욕은 공존하기 힘든 변인일 수 있으며 탐욕과 두려움은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동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유형과 신뢰, 탐욕, 두려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다음은 사회적 가치지향 변인과 신뢰,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탐욕, 두려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가치유형별로 네가지 변인을 변량분석 하였다. 결과를 보면(표 5) 친사회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의 순으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가 유의미 하였다($F(2,121) = 8.171, p < .001$). 사후분석(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가치유형과 개인주의 유형간에는 유의수준 .001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친사회적 유형과 경쟁주의 유형간에는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친사회적 가치는 타인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표 5. 사회적 가치유형별 신뢰, 탐욕, 두려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점수

	사회적 가치 지향		
	친사회지향	개인지향	경쟁지향
신뢰	25.39(3.24)	23.26(2.33)	22.29(2.05)
탐 욕	22.79(2.66)	24.97(2.91)	25.86(3.62)
두려움	26.98(3.71)	28.10(4.74)	29.86(5.66)
정의세상믿음	74.21(9.16)	74.61(7.79)	77.00(9.62)

는 추측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탐욕의 경우도 가치 지향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F(2, 121) = 9.604, p < .001$), 경쟁지향, 개인지향, 친사회지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Tukey 검증)의 결과, 친사회적 가치유형과 개인주의 유형간에는 유의수준 .01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친사회적 유형과 경쟁주의 유형간에는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친사회적 가치지향은 탐욕은 적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강한 반면 개인지향, 경쟁지향은 탐욕은 강한 반면 타인에 대한 신뢰는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요인과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에서 사회적 가치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뢰와 애착유형간의 관계

먼저 애착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두가지를 체크한 응답자 14명을 제외한 142명이 분류대상에 포함되었다. 안정애착유형은 68명(43.6%), 불안정-회피 애착유형이 24명(15.4%), 불안정-혼돈애착유형이 40명(25.6%), 불안정-저항애착 유형이 10명(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애착유형 간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애착유형별 신뢰점수를 변량분석 하였다. 결과를 보면(표 6) 안정애착의 경우가 신뢰 점수가 가장 높았고 불안정-저항 유형은 가장 낮은 신뢰 점수를 보였다. 불안정-회피, 불안정-혼돈 유형 간에는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애착유형별 신뢰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F(3,141) = 2.744, p < .05$). 사후 검증을 통해(Tukey 검증) 확인한 결과 안정애착과 불안정-저항 애

표 6. 애착유형별 신뢰 점수

	안정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혼돈애착	불안정 저항애착
신뢰	25.01(3.555)	24.13(3.780)	24.15(2.402)	22.00(2.404)

착 유형간에 유의도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기에 기반을 둔 애착이 타인에 대한 신뢰의 기본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검증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유형과 애착유형

사회적 가치유형이 애착유형과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가치유형과 애착유형별 분포를 알아보았다. 표 7을 보면, 사회적 가치지향에 있어서 친사회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적, 경쟁주의의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경쟁주의 유형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가치유형은 안정애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불안정-저항애착의 비율이 가장 적다. 경쟁주의적 가치유형의 경우 네가지 애착유형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표 7. 사회적 가치유형별 애착유형 분류

		애착유형				
		안정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양가애착	불안정 저항애착	
가치 유형	친사회적	42(38.2)	14(12.7)	16(14.5)	6(5.5)	78(70.9)
	개인주의적	12(10.9)	6(5.5)	7(6.4)	2(1.8)	27(24.5)
	경쟁주의적	1(0.9)	0(.0)	4(3.6)	0(.0)	5(4.5)
		55(50.0)	20(18.2)	27(24.5)	8(7.3)	110(100)

괄호안은 %를 나타냄.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행동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였다. 협동행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리라고 가정했던 변인은 다섯 가지였다. 다섯 가지 변인은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 사회적 가치지향, 탐욕과 두려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다. 을 측정하고 일종의 게임상황에서 내놓겠다고 정한 액수를 협동행동의 지표로 보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의 협동 행동이란 딜레마 상황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혹은 자기 몫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 행동이다. 결과는 예측한대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강한 사람일수록 협동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지향 역시 영향을 미쳐 친사회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주의나 경쟁주의적 가치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탐욕과 두려움이 클수록 협동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이 애착유형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이었다. 먼저 애착유형과 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정애착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수준이 높았고 불안정-저항 애착의 경우가 가장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사회적 가치유형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애착의 경우가 불안정 애착의 경우보다 친사회적 가치지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유아기의 애착관계를 토대로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며 더 나아가 친사회적 가치를 발달시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뢰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타인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록 이 세상도 정의롭고 공정한 곳이라는 믿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에게 하는 협조나 선한 행동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 믿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협동행동을 하고 이는 다시 타인으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 지향은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마다 다른 동기를 부여해준다. 특히나 개인적인 이득과 집단(타인)의 이득이 충돌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선택에 이러한 사회적 가치지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였는데,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가치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딜레마 상

황에서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가치지향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련 있으며 유아기 애착 양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아기의 애착을 토대로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러한 신뢰가 친사회적이며 평등적, 협동적 가치 형성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지향에서의 차이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과 연계시켜 생각해보면 친사회적 가치 지향의 형성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나아가 공동선을 지향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친사회적 가치 지향은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감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여 공존을 위해서 또 모두가 잘사는 것이 궁극적인 나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협동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신뢰와 사회적 가치유형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인이 애착 경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선택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일관된 선택 경향성이 있는가를 통해 구분하였으며 가상적인 딜레마 상황을 주고 자신의 몫을 얼마를 내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협동행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현실감 있는 측정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지향을 미리 검사하여 같은 유형끼리, 혹은 서로 다른 유형을 조합하여 실제 상황에서 돈을 배분하도록 하는 실제상황을 도입함으로써 더 현실감을 높이는 연구 방안이 도입되면 좋을 것이다. 또 상호작용 과정을 관찰하여 어떻게 행동전략이 변화되어 가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행동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 김의철 (2001). 신뢰의 구조 : 동서양의 비교. 山岸俊男 저. 교육과학사.
- 김지경 (2002).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1-13.
- 임성만, 김명언 (2000). 조직에서의 신뢰 :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3(2), 1-19.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Axelrod, R.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Y : Basic Books.
- Bruins, J. J., Liebrand. W. B. G., & Wilke H. A. M. (1989). About the saliency of fear and greed in social dilemma.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 155-161.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ombs, C. A. (1973). A reparameterization of the prisoner's dilemma game. *Behavioral Science, 18*, 424-428. [Bibliographic Links Library Holding](#)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1), 5-37.
- Cross, S. E., Morris M. L., & Gore J. S. (2002). Thinking about 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 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99-418.
- Doney, P. M., Cannon, J. P., & Mullen, M. R. (1998).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the Development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601-620.

- Durkin, K. (1995).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 From infancy to old age*. Oxford, England : Blackwell.
- Eisenberg, N., & Fabes, R. A. (1991).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 A multimethod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S. Clark(Ed.), *Pro-social behavior* (pp.34-61). Newbury Park, CA : Sage.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 Hardin, R. (1971). Collective action as an agreeable *n*-prisoner's dilemma. *Behavioral Science*, 16, 472-481.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 Wiley.
- Knight, G. P., Kagan, S., & Buriel, R. (1981). Confounding effects of individualism in children's cooperation-competition social motive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5, 167-178.
- Knight, G. P., Kagan, S., Nelson, W., & Gumbiner, J. (1978). Acculturation of second-and third-generation Mexican American children : Field independence,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social achiev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9, 87-97.
- Kuhlman, D. M., & Wimberley, D. C. (1976). Expectations of choice behavior held by cooperators, competitors, and individualists across four classes of experimental ga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69-81.
- Lerner, M. S.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New York : Plenum.
- Luce, R. D., & Raiffa, H. (1957). *Games and decisions : Introduction and critical survey*. London : Wiley.
- McAllister, D. J. (1995). Affect 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 *Ac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473-490.
- Madsen, M. C., & Lancy, D. F. (1981). Cooperation and competitive behavior : Experiments related to ethnic identity and urbanization in Papua New Guine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2, 389-408.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 McClintock, C. G. (1974). Development of social motives in Anglo-American and Mexican-America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48-354.
- McClintock, C. G. (1978). Social values : Their definition, measurement, and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12, 121-137.
- Messick, D. M., & McClintock, C. G. (1968). Motivational basis of choice in experimental ga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1-25.
-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 Platt, G. (1973). Social traps. *American Psychologist*, 28, 641-651.
- Powell, W. W. (1990). Maker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 129-142.
- Rapoport, A., & Chammah, A. M. (1965). *Prisoner's dilemma : A study in conflict and cooperation*.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8, 393-404.
- Rushton, J. P. (1975). Generosity in children : Immediate and long-term effects of modeling, preaching, and mor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59-466.

- Rushton, J. P., Fulker, D. W., Neale, M. C., Nias, D. K. B., & Eysenck, H. J. (1986). Altruism and aggression : The heri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92-1198.
- Sweeney, J. W., Jr. (197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free-rider problem. *Social Science Research*, 2, 277-292.
- Von Neuman, J., & Morgenstern, O. (1947).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K C I

The Effect of Trust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on Cooperative Behavior in Social Dilemma Situation

Ji-Kyung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n cooperative behavior by trust, social value orientation, fear, greed, and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for this goal, and answered by 185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following results are found; those people who trust other people cooperate. And those people who have a value orientation that is prosocial, also cooperate. Fear and greed have a negative effect on cooperative behavior. Trust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were rooted in attachment, they were found to develop better when one experienced secure attachment. And trust is related to the relational self and the belief in just world. Those people who empathy with other people and believe that the world is just have strong trust on other people. The future study need to examine variables influencing trust and social value orientation's development.

Key words : trust, social value orientation, fear, greed, belief in a just world, attachment, relational self

원고접수 : 2006년 7월 10일
심사통과 : 2006년 8월 8일